

교환학생 귀국보고서

파견 학기	2026년도 1학기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학 번	2020-11304	이 름	고상진
소 속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본인은 서울대학교 국제처 주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를 국제처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학생 안내, 프로그램 홍보 등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 출 일	2026 년 8 월 31 일
작 성 자	고 상 진 고 상 진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대학에 입학한 이후로 막연하지만 계속해서 품어왔던 오랜 목표였습니다. 약 반 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스스로를 던지고 자유로이 여행하며 세상과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건축을 공부하는 전공자로서 매체나 책으로 흔히 접했던 타지의 것들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나아가 해외 대학의 수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현지 학생들과 교류하며 학문적 시야를 넓히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생활을 통해 줄곧 미뤘었던 영어 회화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다짐도 더해졌습니다. 4학년을 마치고 졸업을 1년 앞둔 지금이 학업적, 개인적 지평을 넓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는 생각과 함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개인적으로 건축을 비롯해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유독 컸던 유럽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유럽 국가 간에는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여행을 통해 한 번의 파견 기회만으로도 다채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건축학과의 경우 유럽의 우수 대학에서 교환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선택의 제약이 다소 있는 편이었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건축 교육 환경을 갖추고 선배들의 파견 경험을 통해 신뢰할 만한 정보가 풍부했던 베를린 공과대학교(TU Berlin)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일상과 학업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제게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을 갖춘 독일 베를린은 최적의 선택지였습니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비교적 물가가 안정적이고 전반적인 생활 편의성이 우수하여 많은 교환학생들이 선호하는 국가로 여겨집니다. 특히 베를린은 특유의 깊은 역사와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로,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문화 생활이 가능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현지인이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독일어가 서툰 상태에서도 일상생활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주변 파견 학생들로부터 간혹 전해들었던 인종차별 또한 개인적으로는 겪지 않았으며, 마주친 이들의 친절과 배려 덕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뛰어난 교통 접근성 역시 큰 강점이었습니다. 주변 동유럽 도시는 기차나 버스만으로도 손쉽게 이동할 수 있었고,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BER)의 다양한 저가 항공편을 활용해 유럽 전역의 주요 도시와 건축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큰 부담 없이 여행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절차

파견 이후 현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행정 절차가 다소 번거롭고 까다롭다는 파견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본부 자체 선발 및 파견교 선발까지 완료된 10월 말에 곧바로 주한독일대사관을 통한 비자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독일 비자 발급 과정은 대사관 방문 예약(테어민)부터 재정 증명, 보험 가입까지 준비할 서류가 많아 가능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단계별로 미리미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주한독일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예약(테어민)을 잡았습니다. 예약 가능한 일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시로 예약 현황을 확인하며 가능한 한 빠른 날짜로 테어민을 예약했습니다.

비자 신청을 위한 핵심 서류 중 하나인 재정 증명을 위해 독일 슈페어콘토(Sperrkonto)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Expatrio라는 사설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비교적 간편하게 계좌 개설 및 송금이 가능했습니다. 비자 발급 및 대학 등록을 위해서는 현지 공보험 가입 또한 필수적인데, 이 역시 Expatrio의 패키지를 통해 슈페어콘토와 연계하여 TK 공보험 가입을 진행했으며, 정식 학기 시작 전 입국 기간을 대비한 여행자 보험도 함께 구비했습니다. 규정된 월 최소 체류 비용에 체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슈페어콘토에 예치하고 발급받은 재정 증명서(Block Amount Confirmation) 및 보험 가입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를 준비했습니다. 총 6,171유로의 금액을 최종적으로 예치했는데, 이는 매달 일정액씩 계좌로 분할 환급되며 정기적인 기본 생활금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견교 입학허가서(Letter of Acceptance), 여권 사본, 비자 신청서, 영문 재학·성적 증명서, 학업동기서(Intention to Study) 등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구비 서류 일체를 꼼꼼히 정리하여 예약된 테어민에 대사관을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3월 말 출국 전까지 안정적으로 비자를 수령할 수 있었으며, 현지 도착 후 비자 관련 행정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2. 파견교 정식 등록 및 지불 비용

출국 전 파견교 정식 등록 절차는 1월 중순부터 3월 말 사이에 단계별로 진행되었습니다. 1월 중순에 파견교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뒤, 베를린 공대 학생 포털인 tuPORT 계정을 먼저 활성화했습니다. 이후 포털을 통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2월 말까지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신청서 제출 승인 후에는 3월 31일까지 공보험 증명 전송과 학기 회비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공보험 증명의 경우, 공보험사(TK)에 베를린 공대의 고유 기관 번호를 전달함으로써 보험 가입 증명이 대학 전산으로 직접 전송되도록 처리했습니다. 등록 승인이 완료된 후에는 포털에 증명사진을 업로드하여 현지 입국 후 학생증이자 도서관 카드로 사용될 캠퍼스 카드(Campus Card) 발급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교와 파견교 간의 학생 교환 협정에 따라 파견교에 납부하는 수업료(Tuition Fee)는 전액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정규 등록 및 학생 복지, 학생증 발급 등을 위한 학기 회비(Semester Contribution)로 310.49유로를 파견교에 납부했습니다. 교환학생의 경우 일반 행정 수수료가 면제되어 정규 입학생에 비해 감면된 금액이 적용되며, 이 회비에는 학기 기간 동안 독일 전역의 시내 대중교통과 지역 열차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이칠란트 시메스터티켓(Deutschlandsemesterticket)'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유용했습니다. 그 외에는 학기 전 개설되는 80시간짜리 독일어 집중 과정(Pre-semester German intensive course)을 희망할 경우 295유로의 추가 수강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정상 수강하지 못했지만, 학기 시작 전 현지 적응과 독일어 기초 역량을 빠르게 쌓을 수 있어 여건이 된다면 일찍 입독해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기 초(4월 중순)에 파견교 국제교류처로부터 장학생에 선발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독일 외무부(AA)의 재정 지원으로 독일학술교류처(DAAD)가 주관하는 외국인 장학 프로그램인 'STIBET I'의 일환으로 지급된 부분 장학금(Partial Scholarship)이었으며, 함께 파견된 동기 교환학생들 모두가 수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지급액은 1,000유로로, 파견 기간 동안 500유로씩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되었습니다. 파견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모교 담당자님께 장학 수혜 사실을 공유하는 등의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원활히 수령할 수 있었으며, 덕분에 현지 생활비와 정착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3. 숙소 지원 방법

파견교 선발 확정 이후 12월 초에 기숙사 지원에 관한 이메일을 파견교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를린 공대의 기숙사는 Studierenderwerk Berlin(STW)라는 기관을 통해 운영되며, 지원 및 선발 역시 해당 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12월 중순까지 STW 자체 포털을 통해 1차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개인정보, 희망 입주일(3월·4월 초일 중 선택), 계약 종료일(7월·8월·9월 말일 중 선택), 희망 월세 상한선 등을 입력하고 입학허가서(Acceptance Letter)와 여권 사본 등을 업로드했습니다. 지원 마감 후 1월 초에 파견교로부터 최종 기숙사 당첨 여부를 공지받을 수 있었고, 이후 파견교 포털(Mobility-Online)에서 기숙사 설문지를 작성함으로써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1월 중순에 파견교 및 STW로부터 최종 배정 결과와 임대 계약(Rental Agreement) 안내를 받고 무사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학기에 교환학생이 지원 가능한 기숙사는 다음 4곳이 있었습니다.

- **Siegmunds Hof**: 캠퍼스에서 도보 10분 거리로 매우 가깝지만, 주방 및 화장실을 18명이 공용으로 사용하여 다소 소음이 있을 수 있음. (월 약 344.50 ~ 424.50유로)
- **Hans und Hilde Coppi**: 대중교통으로 약 45분 거리이며, 플랫 형태로 2명과 주방/화장실 공유. (월 약 304.50 ~ 349.50유로)
- **Hubertusallee**: 대중교통으로 약 30분 거리이며, 개인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으나 주방은 층 전체 공용. (월 약 389.50 ~ 419.50유로)
- **Sewanstraße**: 대중교통으로 약 55분 거리이며, 플랫 형태로 2~3명과 주방/화장실 공유. (월 약 329.50 ~ 389.50유로)

개인적으로 통학 거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Siegmunds Hof를 1순위로 신청하여 최종 배정받았습니다. 선배들로부터 대부분이 Siegmunds Hof에 배정된다고 들었으나, (아마 당시 주요 거주동 중 하나가 공사 중이었던 영향으로) 동기 교환학생 다수가 Hans und Hilde Coppi 등으로 배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기숙사 입주 자체는 큰 문제 없이 이루어지는 편으로 보입니다.

저는 비교적 작은 아파트 중 하나인 Haus 10에 배정되었습니다. 개인 테라스가 있었고, 거주자 대다수가 교환학생이 아닌 본교 정규 학생이었기 때문에 소음 없이 쾌적하고 조용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월세는 394.50유로였으며, 보증금으로는 두 달 치 월세에 해당하는 789유로를 납부했습니다. 비자와 기숙사 모두 정규 학기 종료 시점인 9월 말까지 등록했으나, 개인적으로 일정이 변경됨으로써 8월 말에 조기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6월 초에 마지막으로 퇴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안내 이메일을 받아, 기한 내에 신청하여 위약금 없이 8월 말로 퇴거일을 한 달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이 조정 기간을 놓칠 경우 조기 퇴거를 하더라도 9월 말까지의 월세를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기타 유용한 정보

독일의 경우, 입국 및 입주 후 2주 이내에 관할 공관(Bürgeramt)에 방문하여 거주지 등록(Anmeldung, 안멜등)을 마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방문 예약(테어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는 것을 추천하며, 방문 시에는 여권과 기숙사에서 발급받은 거주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반대로 파견을 마치고 귀국할 때는 거주지 등록 말소(Abmeldung, 압멜등)를 진행해야 합니다. 압멜등은 마찬가지로 테어민 이후 공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우편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멜등 및 압멜등 완료 후 발급되는 증명서는 모두 각종 행정 절차에 쓰이므로 체류 기간 및 출국 전후로도 잘 보관해야 합니다.

IV. 학업

1. 수강신청 방법

우선 베를린 공과대학의 수강신청 및 운영 방식은 국내 대학과 사뭇 다르며, 과목마다도 상이합니다. 가장 먼저 참고해야 할 것은 학과별 강의계획서인 KVV(Kommentiertes Vorlesungsverzeichnis)입니다. 건축학과와 건축학과, 매 학기 개강 전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당해 학기 개설 강의 전체 정보가 담긴 KVV PDF 파일이 공지됩니다. 특히 학기 초에 진행되는 학과 오리엔테이션과 각 스튜디오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오픈 스튜디오(Open Studios)' 등의 핵심 일정 또한 KVV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필히 확인 후 참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 수강 등록은 TUB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ISIS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ISIS에서 원하는 수업을 검색해 등록하면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강의 자료와 공지사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ISIS 코스 등록 자체가 공식적인 수강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과목인 설계 스튜디오(Design Studios)의 경우, 학기 초 ISIS 내 전용 투표 시스템을 통해 1~3순위를 지정하여 신청한 뒤 배정받는 별도의 절차를 거칩니다. 반면 일반 이론 및 세미나 수업은 과목에 따라 첫 수업(Kick-off) 참석 시 교수님이 직접 수강생을 확정하거나, 사전에 이메일로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방식이 다르므로 사전 공지나 첫 수업에 빠짐없이 참석해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강 확정 이후 학기 중반에는 학점 인정을 위한 시험 및 모듈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TUB 학사 시스템인 Moses(MTS)에서 수강 과목을 조회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시험 등록을 완료해야 학기 말 평가 및 학점 취득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수강 취소(드랍) 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시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강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되어 성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학기가 끝난 후에는 교환학생의 경우 전산 시스템만으로 성적이 바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종강 후 담당 교수님께 자인(Schein, 수기 성적 확인서)을 개별 요청해 일체 수령한 뒤 학사 포털에 업로드하여 최종 학기 성적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내 대학보다 행정 절차가 복잡하므로 공지와 일정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우선 저는 모교에서 4학년 과정을 마친 학부생 신분이었지만, 3년제 학사 시스템을 운영하는 독일의 학제를 고려하여 베를린 공대에는 건축학과(Architecture) 석사 과정(Master)으로 지원하였고, 파견 교로부터도 원활하게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전공 수업을 이수하고자 했으며, 대부분의 학부 수업이 독일어로 개설되는 반면, 석사 수업은 영어로 개설되는 수업이 훨씬 많았습니다.

베를린 공대에서 수학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커리큘럼의 유연성과 주제의 다양성이었습니다. 매 학기 다양한 관점의 실험적인 수업들이 새롭게 개설되기 때문에 학문적 흥미를 크게 넓힐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낯선 환경 속에서도 관심 분야의 수업들에 깊이 몰입하며 뜻깊은 학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파견 기간 동안 이수한 세 과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Open Types, Open Morphologies: re-imagining Berlin with its unbuilt pasts

(Architekturtheorie/Philosophie I)

영어로 개설된 2학점(3LP) 세미나 수업입니다. '로마 인테로타(Roma Interrotta)'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참조하여, 1990년대 이후 베를린 도시·건축 공모전의 미실현(Unbuilt) 계획안들을 유형학적·형태론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베를린의 대안적 미래를 탐구했습니다. 학기 말 최종 과제로는 3명씩 구성된 그룹이 각각 '이탈리아 신헤리주의', '하이테크',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사조별 주제에 맞춰 베를린의 놀리 맵(Nolli Map)을 재해석하고 편집한 지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교수님의 매우 열정적인 가이드에 감명을 받았으며, 교환학생으로서 베를린이라는 도시를 건축·역사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유익한 강좌였습니다.

2. THE BATCAVE - MORE THAN A CHANGING ROOM (Entwerfen 6)

2학점(3LP) 세미나 수업으로 영어와 독일어로 개설되었으나, 실제 강의는 대부분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학술적 글쓰기나 기능 중심의 설계를 벗어나, Autopoietic Writing과 Ekphrasis 기법을 통해 텍스트로 내면의 정서와 감각적 분위기를 먼저 구축한 뒤 이를 점진적으로 건축적 이미지와 공간으로 번역해내는 디자인 방법론을 배웠습니다. 학기 말 최종 과제로는 가상의 슈퍼히어로인 배트맨(브루스 웨인)의 복합적인 내면 심리와 트라우마, 이중성 등의 성격에 주목하여 텍스트를 먼저 창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탈의실을 넘어 두 인격이 공존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은신처(Batcave)를 디자인한 공간 이미지를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텍스트와 서사에 관심이 깊던 제게는 글쓰기와 건축적 생산 사이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 기존의 설계 방법론을 새롭게 환기할 수 있었던 흥미롭고 실험적인 강좌였습니다.

3. Applied Machine Learning in Engineering (Applied Machine Learning in Engineering)

기계공학과에서 영어로 개설된 4학점(6 LP) 이론 및 실습 강좌입니다. 실제 공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신경망 기초 및 모델 평가까지 머신러닝의 전 과정을 다루었으며, 매주 파이썬(Python) 기반의 코딩 실습이 병행되었습니다. 평가는 머신러닝 모델 학습 및 리포트 제출(25%), 모델 설명 90초 영상 과제(25%), 학기 말 디지털 필기시험(50%)의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과학의 기초가 되는 머신러닝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실제 코딩 구현을 함께 경험하며, 비전공자임에도 큰 어려움 없이 새로운 분야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3. 학습 방법

베를린 공대의 경우 강좌마다 시간표부터 수업 진행 방식, 과제와 평가 방식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강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 학기의 일상 패턴과 학업 계획이 크게 달라집니다. 학기 초에는 대부분의 수업을 자유롭게 청강하며 탐색해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다양한 개설 과목들을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시간표를 구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깊이 있는 학업과 동시에 현지 생활과 여가를 함께 누리는 보다 건강한 유학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우에는 수강했던 세미나들이 특히 매주 열리기보다는 격주로 진행되거나 한 달에 한 주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평소 시간적 여유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수강 과목들 모두 학기 중 과제나 포트폴리오 위주의 평가 방식이었던 덕에 종강 후 학기 말 시험에 대한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큰 부담 없이 학업을 즐기면서도 틈틈이 개인 시간을 가지며 베를린에서의 일상도 충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4. 기타 유용한 정보

평소 운동을 좋아하거나 현지에서 새로운 취미 활동을 만들어보고 싶다면 베를린 공대에서 제공하는 대학 스포츠 프로그램인 TU-Sport를 적극 이용해보시길 추천합니다. 학기마다 수많은 종목의 스포츠 강좌가 학생에게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어 부담 없이 다양한 운동을 접해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기존에 즐기던 축구(Fußball)와 더불어 파쿠르(Parkour) 수업을 신청해 새로 배워보았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한 학기 강좌 기준으로 축구는 18유로, 파쿠르는 33유로를 지불했습니다. 꼭 실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초보자나 입문자를 위한 강좌도 잘 갖추어져 있어 이 기회에 새로운 스포츠에 도전해보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현지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언어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운동을 즐기며 교류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큰 장점입니다. 학기 초에 TU-Sport 홈페이지에서 개설 종목과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생활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

당시 환율의 영향도 있었고, 전반적인 현지 체감 물가 자체는 한국보다 다소 높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식자재나 생필품은 대형마트나 드럭스토어에서 꽤나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이를 잘 활용한다면 생활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상비약이나 개인 맞춤형 물품 등 특수한 필수품을 제외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건은 현지에서도 부담 없는 가격에 구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짐 싸는 데에 있어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많이들 알다시피 현지 외식비는 기본적으로 인당 15유로를 웃돌아 한국에 비해 부담이 큰 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매해 직접 요리해 먹었습니다. 나름 현지의 다양한 식재료로 여러 요리를 직접 시도해보는 재미도 쏠쏠했던 것 같습니다. 교내 학생식당인 멘자(Mensa) 역시 정해진 시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를 해결하기 좋았습니다. 다만 제공 메뉴의 대다수가 비건 위주이고 육류 메뉴는 드물게 나오는 편이라, 점차 과일이나 디저트 위주로 이용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기 등록을 마치면 전국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도이칠란트 티켓(Deutschlandticket)'이 발급되어 시내 교통비 부담은 사실상 없습니다. S-Bahn이나 U-Bahn, 버스나 트램 모두 별도의 개찰구나 태깅 없이 자유롭게 탑승하며, 아주 가끔씩 검표원이 표를 확인할 때에도 발급받은 QR코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장거리 이동 시 RE나 RB 등 일반 완행열차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지만, 초고속 열차인 ICE나 IC 등 고속철도는 도이칠란트 티켓 적용 대상이 아닌 유료 노선이므로 별도 예매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들 또한 만 26세 이하 또는 도이칠란트 티켓 소지자 할인을 활용하면 요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료 열차와 항공편은 대체로 탑승일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오르므로, 여행 계획이 있다면 미리 계획 후 예매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저는 은행 계좌와 모바일 통신 모두 N26을 활용했습니다. 현지에서 많이 쓰는 프랭크(Fraenk) 요금제도 있으나, 개인적으로 가입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N26 모바일 요금제를 선택했습니다. N26 계좌는 출국 직전 손쉽게 개설했고, 요금제 또한 입국 후 eSIM으로 간편하게 등록해 문제 없이 사용했습니다. 특히 현지에서 N26 카드와 연동해 사용한 애플페이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생각이 날 만큼 매우 편리했습니다. 다만 독일 현지의 통신망 속도와 안정성은 한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라 불편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의료의 경우에 저는 파견 기간 동안 공보험(TK)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다만 기숙사 제출용 서류를 떼기 위한 간단한 진료 한 번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병원을 찾을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공보험료(약 146유로)가 다소 부담스러워 도중에 사보험으로 변경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귀국할 때까지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혹여나 현지에서 병원 진료 예약이 필요할 일이 생긴다면 닥터립(Doctolib)이라는 앱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3.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등)

학교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버디 프로그램을 신청해두면 개강 전후로 안내 이메일과 함께 매칭된 버디 학생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특히 학기 초에는 개강 파티나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 ESN(Erasmus Student Network) 프로그램 등 각종 교류 이벤트나 행사가 매우 많습니다. 현지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교환학생들과도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길 권합니다.

베를린이나 유럽 도시들을 여행할 때 학생증을 지참하면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학생 할인을 받거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곳이 많으니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철 베를린은 이곳저곳에서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끊임없이 열립니다. 가령 매주 일요일에는 곳곳에서 크고 작은 벵크시장이 열리며, 야외 영화 상영회나 오픈에어 레ιβ 파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끊이지 않으니 베를린만의 자유로운 계절감을 꼭 만끽해보시길 바랍니다.

4. 안전 관련 유의사항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비교적 치안이 안전한 편으로 여겨지며, 개인적으로도 관련하여 위험한 일을 직접 겪은 경험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변 교환학생들로부터 소매치기를 비롯한 각종 피해 사례를 많이 전해들었습니다. 특히 다른 국가로 여행을 떠날 시에는 이동 시 짐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이나 관광지 등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는 소지품에 항상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권합니다.

5. 기타 유용한 정보

독일 생활에 있어 꼭 알아두어야 할 두 가지 일상 문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판트(Pfand) 제도입니다. 마트에서 캔이나 페트병, 유리병에 든 음료를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이후 다 마신 병이나 캔을 모아 마트의 자동회수기를 통해 보증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계산 시 결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독일을 포함한 몇몇 국가는 법적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에 특수한 일부 상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마트와 일반 상점이 문을 닫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식료품이나 생필품은 반드시 미리 장을 봐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Ⅵ.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사실 돌이켜보면 모든 일이 파견 전 기대했던 것만큼 뜻대로 흘러가지도 않았고, 언제나 마주했던 많은 현실이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 시간 동안 만난 모든 인연과 겪었던 모든 경험들만큼은 하나하나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그 덕분에 간혹 아쉬웠던 몇몇 순간들조차 이제는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서, 더 넓고 다양한 세상에 직접 부딪히며 오랜 기간 지속해오던 개인적인 고민의 깊이를 한층 더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후회를 남기지 않기에는 충분합니다. 이처럼 제게 과분한 시간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회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